

# 우리는 왜 ‘善行’을 해야 하는가



##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의 중심 단어가 진여이다. 이 진여에 들어가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설해 놓은 것이 기신론의 주 내용이다. 모든 수행이 진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 부수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도 설해져 있다.

본문에서 문답한 글 가운데 선행을 왜 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한 대목이 있다.

“법계는 하나의 모습이며 부처의 본체는 돌이 없는 것이라 하고서 왜 진여만 생각하지 않고 온갖 선행을 찾아 배워야 한다 하는가?”

“그것은 비유하면 이렇다. 마니보(摩尼寶) 자체 성품이 밝고 깨끗한 것이기는 하나 이물질의 때가 끼면, 비록 보배이기는 하지만 깨끗하지 않는 것처럼 진여의 법도 자체 성품을 비유 깨끗한 것이기는 하나 한량없는 번뇌의 때가 있다. 이 오염된 때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선행을 닦는 것이다.”

선행을 닦는 것을 밝게 빛나는 마니보에 끼여 있는 때를 닦아 내는데 비유하였다. 마니보란 경전에 자주 나오는 보배구슬로 가장 값진 최상품의 구슬을 말한다. 온갖 재액과 고난을 없애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큰 공덕을 갖추고 있는 구슬이라 한다. 또 밝고 깨끗하여 빛이 나면서 모든 것을 두루 비추어 준다는 뜻에서 불성

### 선행은 마니보의 때를 닦아

### 진여로 들어갈 수 있게 해

(佛性)을 마니보주에 비유하기도 한다. 기신론에서는 마니보가 진여에 비유된 것이다.

선행을 닦을 것을 권장한 후에 다시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방편이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다. 범어 우파야(upaya)를 번역한 말로 ‘편의를 위한 교묘한 수단’을 쓰는 것을 방편을 쓴다고 한다. 진여의 본성을 법성

(法性)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면서 이 법성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머무는 바가 없고(無住), 둘째 일체 허물을 떠나 있으며(離諸過), 셋째 어리석음으로 인한 장애가 없으며(離障礙), 넷째 단절됨이 없다(無斷絶)고 하였다.

이러한 법성에 순응하기 위하여 제시한 네 가지 방편은 ① 행근본방편(行根本方便)과 ② 능지방편(能止方便)과 ③ 발기선근증장방편(發起善根增長方便)과 ④ 대원평등방편(大願平等方便)이다.

‘행근본방편’은 근본을 행하는 방편으로 실제 생활에 근본진리를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뜻이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은 영원불변성의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릇된 집착을 일으켜 죽자 사자 다투며 허황한 행동을 하는 일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因)과 연(緣)의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인과(因果)의 도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근본 이치를 알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책임 있게 알아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위한 진여 본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끝없는 이타행을 실천, 중생을 교화하지만 정작 자신은 열반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진여의 본

성에 순응하여 이타의 원력을 더욱 키워 나간다.

‘능지방편’은 능히 그치는 방편이다. 말하자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부끄러워하고 허물을 뉘우쳐서 일체 악업을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발기선근증장방편’은 선근을 일으켜서 더욱 늘어나게 하는 방편이다. 말하자면 삼보에게 공양 예배하며 찬탄하고 기뻐하여 여러 부처님을 권칭한다. 삼보를 경애하는 마음이 순수하고 두터운 까닭에 믿음이 더욱 늘어나고 능히 위없는 도를 구하게 되며, 또 불(佛) · 법(法) · 승(僧) 삼보의 힘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능히 업장 소멸해 선근(善根)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법성이 어리석음의 장애를 떠나 있는 점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대원평등방편’은 크나큰 발원을 평등하게 하는 방편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일체의 고통을 떠난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라는 원을 펴는 이 방편은 진여의 본성이 본래 끊어짐이 없는 이치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것이다. 진여의 본성은 영원하고 광대하다. 모든 중생이 모두 이 진여의 본성에서 보면 상대적인 차별을 초월하여 똑같다. 너와 나를 나누어 둘로 보는 것은 진여의 본성에 순응하지 못한 망념 때문이라는 것이다.



## 행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無念, 無相, 無住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 산다. 행복의 요인으로는 재(財) · 색(色) · 식(食) · 명(名) · 수(壽)의 성취와 누림이 우선이겠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으로, 또는 오욕락을 멀리하며 해탈(解脫)을 목표로 정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제도적인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난 행복 누림의 자유로움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과 자유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이며 수레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와 같다 하겠다. 불교의 모든 경전의 시작은 여시야문(如是我聞)으로 출발해 신수봉행(信受奉行)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법신(法身)과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이 나누어 셋 일뿐, 셋이 아닌 하나이므로, 부처와 제자들과의 반복되는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책이

(色)의 반대는 공(空)이고, 무(無)의 반대는 유(有)이다. 그러므로 무념(無念)은 유념(有念)의 병을 치유하고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 없을 무(無)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의 노예인 유념(有念)에서 생각의 자유로움에 이르는 것이 무념(無念)인데 이는 곧 생각의 평화, 진정한 생각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프로이드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생각의 끌어들이는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직접 또는 간접의 경험하고 상상했던 일이 꿈속으로까지 이어지며 생각이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 귀, 코, 입, 몸, 뜻을 통해 이어지는 잡념(雜念)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신수행의 첫걸음이다.

달아내며 비우며 지우는 것으로 시작해 텅 빈 증만에 이르는 것이 무념(無念)이다. 생각은 남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나 그 뿌리와 흔적이 깊고 진하면,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입거나 근심걱정을 키

## 중생들이 앓는 병은 집착서 비롯 육바라밀 · 팔정도 실천, 행복의 길

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유마힐이라는 거사의 가르침이 <유마경>으로, 중국에서는 혜능 스님의 가르침이 <육조단경>으로, 경(經)으로 이름 붙여져 밝은 빛을 더해 주고 있다. 여기서는 <육조단경>의 핵심사상인 무념(無念)과 무상(無相), 무주(無住)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먼저 셋을 설명하기 전에 모든 경전에서 중생들의 집착에 대해 색깔과 무게가 다르긴 하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요 집착에서 자유로운 것이 열반이기 때문이다. 물론 해탈과 열반은 돌이 아닌 하나이다. 중생들이 앓는 모든 병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쥐고 모으고 행기려는 소유욕이 병을 만들고 넘치고 지나침이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구걸하러 왔다고 한다면, 그 말을 전한 사람에게도 감사의 상을 주고, 구걸하러 온 이에게도 나머지 재물을 주는 이가 바로 보살이다. 보살은 어떤 사람이 구걸하는 말을 하는 순간 얼굴을 찌푸리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도리어 구걸하러 와준 이가 한없이 고맙고 사랑스럽다. 구걸하러 찾아온 이가 차라리 경의스럽다.

우게 된다. 생각은 타인(他人)이 원인제공은 할 수 있으나 생각의 노예에 이르는 것은 남 탓이 아닌 내 탓인 것이다.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는 주제도 아니지만, 생각의 윤회에서 벗어나야 할 의무도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념(無念)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머물지 않는 생각의 자유를 뜻함이다. 다음은 무상(無相)이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허상과 허울, 티내고 으스스대며 명분과 실리(實利)로 둔갑하길 좋아한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고 보면 형식과 체면유지 모양새와 명예 등이 참으로 부질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상(無相)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욕이 병을 만들고 넘치고 지나침이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형의 온갖 형상들이 덧없음을 알아차려 형상과 틀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가르침이다.

다음은 무주(無住)이다. 재산과 명예, 사랑과 성공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것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거짓일 뿐 머물 없이 흘러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은 스쳐지나갈 뿐이다. 머물에서 자유로운 것이 진정한 의미의 무주(無住)이다.

# 보살의 해탈은 결인에 의해 완성



##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 ◎ 구걸이 가지는 의미

乞者既得滿足歡喜悅豫轉相施與亦如菩薩。施乞求者展轉相聞亦如菩薩。菩薩布施流聞一切。諸貧窮者皆來歸向。如曠野樹行人熱時皆往歸趣。菩薩愛樂名勝得解脫。何以故。能使乞求者來使我得施福故。以施福故名得勝處。一切眾生皆來歸集。如是居士悉應敬禮。菩薩心喜即覺身輕。以此相故當知必有來乞求者。若有人來語菩薩言。有乞者來。菩薩歡喜即以財物而賞使者。菩薩即以餘物而與乞者。見乞者來歡喜愛敬。求者言乞。作此語時懷憐愍心。(절차기득만족환희열에전상시여역여보살, 시걸구자전전상문역여보살, 보살보시류문일체, 제빈궁자개래귀향, 여광야수행인열시개왕귀쵸, 보살에락명승득해탈, 하이고, 능사걸구자래사아득시복고, 이시복고명득승처, 일체

중생개래귀쵸, 여시대사실응경례, 보살심희즉각신경, 이차상고당지필유래걸구자, 약유인래어보살언, 유걸자래, 보살환희즉이재물이상사자, 보살즉이여물이여걸자, 견걸자래환희에경, 구자언걸, 작차어시회연민심.)

### 번역

구걸하는 이가 만족함을 얻어 즐겁고 기뻐하며 구걸하던 모습을 돌이켜 보시를 베풀면 보살과 같고, 보시를 구걸하는 이가 모습을 돌이켜 널리 베풀는 소리를 들으면 역시 보살과 같습니다. 보살의 보시가 흘러 일체가 듣는다면, 모든 빈궁한 이들이 다 찾아오나니, 광야에 나무가 있으면 뜨거운 때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이 사랑하고 좋아할 것은 수승한 해탈을 얻었

다고 불리는 것이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능히 구걸하는 이가 오도록 하여 내가 보시의 복덕을 얻기 때문입니다. 보시의 복덕으로써 수승한 것을 얻었다고 부르나니, 일체의 중생이 모두 찾아와서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대 보살을 모두 응당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보살심(菩薩心)을 즐거워하면 곧 깨닫고 몸도 가깝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응당 알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이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와서 보살이라는 말로 구걸하는 이가 왔다고 말한다면, 보살은 기뻐하며 곧 심부름 한 사람에게 재물로써 상을 주고, 보살은 곧 나머지 재물로써는 구걸하는 이에게 줍니다. 구걸하는 이가 온 것을 보면 기뻐하고 경애하며, 구걸하는 이가 구걸을 말하면, 이 말을 들을 때 마음 깊이 연민심(憐愍心)을 자아냅니다.

해설 보살은 스스로 보살로 머물지 않는다. 보살은 보살을 낳는 어머니다. 보살의 보시는 구걸하는 이에게도 보살심을 자아

낸다. 그리하여 구걸하는 이가 그 보살심에 감동되어 자신의 구걸하던 모습을 돌이켜 남에게 베풀게 된다. 이럴 때 보살은 새로운 보살을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살은 메마른 광야의 큰 나무고 늘이다. 모든 지친 이들의 쉼터이자 위로다. 그리하여 보살의 해탈은 구걸하는 이를 통해 완성된다.

해탈은 울무를 벗어나는 것이니, 그 울무는 다름 아닌 사람의 욕심이다. 배움을 통해 보살은 진정한 해탈을 얻고, 그 수승한 해탈을 얻었다는 말을 즐거워한다. 보살은 재물이 많고 부유하다는 소리가 아닌, 그것에서 해탈했다는 말을 즐거워하는 존재다.

만약 누군가 구걸하러 왔다고 한다면, 그 말을 전한 사람에게도 감사의 상을 주고, 구걸하러 온 이에게도 나머지 재물을 주는 이가 바로 보살이다. 보살은 어떤 사람이 구걸하는 말을 하는 순간 얼굴을 찌푸리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도리어 구걸하러 와준 이가 한없이 고맙고 사랑스럽다. 구걸하러 찾아온 이가 차라리 경의스럽다.

## 열린 불교 아카데미 제3기 개강 원순스님의 <선요 禪要>

개강일시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저녁 7시

강의기간 2016년 5월 23일 ~ 2016년 9월 26일 (4개월 과정)

장 소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5월, 열린불교아카데미의 세 번째 법석이 열립니다.

<금강경오가해> <대승기신론> <치문> <중론> <명추회요> <법보단경> 등 다양한 경전 해설서로 전법을 펼치고 있는 선지식 원순스님이 선수행의 요체 <선요 禪要>로 불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선요>를 수지하여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우주법계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자재한 삶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수승한 공부 길에 함께 할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강료 월 5만원

문의 열린불교아카데미 010.3564.3725 / 051.244.0263

이메일 puremind-ms@daum.net

### 법사 | 원순스님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 해인사 · 송광사 ·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 조계종 교재편찬위원 역임,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안거중

\* 건너편 성원주차빌딩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 ☺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 불기 2560(2016)년 병신년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에서는 재가불자들의 신심증장과 수행풍토조성을 위해 재가안거수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안거에서는 실천수행을 강조하고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재가불자들에게 수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가불자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① 기간 : 하안거 기간과 동일 2016. 5. 21(토/음 4.15) ~ 2016. 8. 17(수/음 7.15)

② 동참금 : 2만원

③ 입재식 : 5월 19일(목) 오후 2시 흥법사 (부산연합회장 수진 스님 법문)

④ 재가안거 수행프로그램을 회향하신 분들에게는 안거증 발행

⑤ 참여한 재가자들에게 한해 수행록 제공

### 입재식

• 일 시 : 5월 1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흥법사

• 법 문 : 수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무국 ☎ 051)501-7554

## (사)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